



틱한 스님(사진)은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식 방한일정에 들어간다.

스님은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생명, 환경, 평화를 위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19일 오후 6시 포포인트 셰라톤 호텔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종교적 성찰' 평화포럼 강연, 20일 오전 7시 30분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Soul&Business'를 주제로 조찬강연을 한다.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광주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틱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서울(20일), 부산(25일), 대구(26일), 광주(27일)에서 공개강연을 연다. 또 3월 22일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 명상'도 준비중이다. 이 중 기업인을 위한 조찬강연은 20만원+기부금, 3일간의 수행은 30만원, 동국대 강연은 5만원의 회비를 내야한다. 02)326-1140 남동우 기자

## 22일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 명상

## 28일 새만금 갯벌 생명 살리기

### 틱한스님 18일 방한...일정 확정

■틱한 스님 한국방문 주요 일정

날짜(요일)	내용	시간	장소
3월 18일(화)	방한공식 기자회견 심포지엄(주제:생명, 환경, 평화를 위하여)	오전 10:00~12:00 오후 3:00~5:00	프레스센터 19층 국회의원회관대강당 1층 대회의실
3월 19일(수)	평화포럼(주제:전쟁과 평화에 대한 종교적 성찰)	오후 6:00~9:00	포포인트 셰라톤 호텔
3월 20일(목)	기업인을 위한 조찬 강연 서울강연(화)	오전 07:30~10:30 오후 3:00~5:00	그랜드힐튼호텔 코엑스 컨벤션홀 12번
3월 22일(토)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 명상	오후 2:00~5:00	
3월 23일(일)	순천 송광사 방문/방장스님과 다담		
3월 24일(월)	순천 송광사 강연 특강 부산 범어사 행자교육원 특강		
3월 25일(화)	부산강연(나누는 삶, 함께하는 행복)	오후 7:00~9:00	부산KBS홀
3월 26일(수)	대구강연(고통을 건너 희망 만들기)	오후 3:00~5:00	경북대학교 대강당
3월 27일(목)	실상사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방문 귀농학교, 한생명, 작은학교, 화림원 광주강연(내 안의 평화 그리고 화해)	오후 7:00~9:00	5·18공민네 무각사
3월 28일(금)	새만금 생명살리기 위한 걷기 명상 틱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1/3회		한국노동교육원(경기 광주)
3월 29일(토)	틱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2/3회		
3월 30일(일)	틱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3/3회		
3월 31일(월)	중앙승가대학 강연 동국대 강연 1/3회	오전 10:00~12:00 오후 7:30~9:30	중앙승가대 동국대
4월 1일(화)	동국대 강연 2/3회	오후 7:30~9:30	동국대
4월 2일(수)	동국대 강연 3/3회	오후 7:30~9:30	동국대

##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되면 4만ha ‘죽음의 갯벌’로 변해”

### 한·독 심포지엄 열려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원시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무참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독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새만금 강행발표, 그 이후’ 첫날 심포지엄에서 독일갯벌국립공원보호청 켈러만 박사는 새만금 문제에 접근할 때 △경제발전에만 대한 요구와 자연보호의 필요성 사이에 실질적인 균형을 이룰 것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생가능한 자원들을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할

것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경관과 자원이용이 가져다주는 장기적 이익에 대해 우위를 부여할 것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으면 4만ha의 새만금은 죽음의 생태계로 변한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방조제 축조를 중단하고 바닷물을 드나들게 해 갯벌을 살리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5일 새만금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진 후, 6일 부산성당에서 마무리 심포지엄을 열었다.

남동우 기자

## 스님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거

### 고무신 속에서 비 피하는 개구리

### 대웅전 처마밑 올빼미 영상에

#### KBS, ‘봉암사의 숲’ 방영

봉암사 대웅전 처마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올빼미와 스님의 고무신 속에서 비를 피하는 두꺼비.

성철 스님 등이 모여 현 조계종의 승풍을 세운 '봉암결사'로 유명한 봉암사. 1982년 이래 초파일에만 산문을 개방하고 있는 봉암사가 모처럼 문을 열었다.

5일 방영된 KBS 1TV ‘자연다큐멘터리-봉암사의 숲’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봉암사 숲의 아름다움을 서정적 영상으로 담았다. 까막딱따구리와 올빼미, 큰소쩍새 등의

야생동물들이 봉암사 스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1년간의 촬영을 통해 화면에 담은 것이다.

이렇듯 봉암사 숲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의 생명존중사상 덕분이었다. 스님들은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막대기를 놓아 개미가 마을고 이동할 수 있게 했고, 추운 겨울엔 야생동물에게 현식을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앙의 에그덤핑(Egg Dumping, 집단산란) 모습이 국내 최초로 촬영돼 눈길을 끌었다.

제작을 맡은 신동만 프로듀서(38)



◇봉암사 대웅전 처마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올빼미.

는 “봉암사 숲의 자연생태는 원시 그 자체로 국내 최고의 야생동물 서식처”라며 “적자생존 논리가 아닌 생명사상과 느낌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생태를 관찰하는 동양적 자연다큐멘터리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 봉축열차 운행 힘들듯

### 장식물 화재위험 우려

올해도 봉축열차 운행이 어렵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지하철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문화열차 인파에 설치된 장식물이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열차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열차 프로그램 중 하나인 봉축열차의 초파일 기간 운영 계획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아직 공사측과 구체적인 협의의 하지 않았지만 불연소재로 봉축열차를 꾸미는 등 대안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초파일의 중요한 공간인 봉축열차를 올해도 운행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여기가 조계사야”. 봄비를 맞으며 첫 서울나들이에 나선 전남 장성 백화도량 해인사의 무학스님과 동자승들.

## 백화도량 동자승 9명 서울 나들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동자승 9명이 나타났다. 전남 장성 백화도량 해인사에 살고 있는 무학 스님과 동자승들이 첫 서울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을 겸한 것이다. 방승이 끝나고 조 금씩 흘날리는 눈비를 맞으며 남산 구경도 하고, 조계사에 들려 대웅전도 참배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에 들려 책도 보고 백화전 구경도 하고, 교보문고

#### TV출연·조계사·본사 책방 여시아문 방문

그동안 KBS ‘인간극장’ 등의 TV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알려진 탓에 동자승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랐다.

백화도량 식구들의 이번 나들이는 6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에서 사인회를 가진 후에도 나들이가 끝났다.

이들의 이번 나들이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천진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 묻지 않은 그 마음·이 본래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수령 기자

###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한반도서 남북함께 열자”

세계종교인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8차 회의를 한반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안이 나왔다.

2일 서울 웨라타워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ACRP)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조선종교인평화회의(CRP) 공동회의에서 김성근 ACRP 사무총장은 “5년마다 열리는 세계종교인 평화회의의 8차 총회를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북측 장재원 CRP 회장은 “돌아가 검토해 보겠다”며 ACRP의 구체적 사업과 일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남동우 기자

## 한국불교연구원 조직개편

### 연구부 신설, 부장겸 사무국장 허남결 박사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조직 개편을 단행, 학술·연구 기능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최근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를 부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연구부장직을 신설해 허남결 박사(동국대 강사)를 연구부장 겸 사무국장으로 영입했다.

정병조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이번 개편으로 불교학 연구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앞서가는 불교학을 지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불교학술상인 보현상 제정으로 소장 불교학자 지원 △학술 세미나 활성화 등을 통한 연구 발표 기회 확대 △‘불교연구’ 전문학술지 편입 △한국 불교 신행형태 조사 △한국의 사찰 시리즈 제·원안 및 영역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고양, 평촌, 군포, 신원,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 삼환양초는 4월 초파일 모든 법당에서 특별하게 쓰입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 식물성 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 2 식물성양초 톤타레 - 지름 5.6cm x 27cm
- 3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 4 식물성 6각초(氣) - 지름 7.5cm x 30cm
- 5 식물성 복(福)초 - 지름 3.4cm x 24cm
- 6 식물성 쌍대 - 지름 3.4cm x 22.5cm
- 7 식물성 3" x 6" - 지름 7.3cm x 14.5cm
- 8 식물성 3" - 지름 7.3cm x 10cm

- 1 전사지양초(오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 2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 3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4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5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오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 6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실색, 적색, 연두, 전사지-연화, 반야심경, 무지개)
- 7 글대(쌍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 8 톤타레 양초 지름 5.6cm x 27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오랑이, 용, 반야심경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 “부처님 등불” 가나공예양초

기원 전기촛불 수공예 양초 (색상: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하우고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 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를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면을 통하여 처음 인사드리며, 특히 이번 ‘부처님 등불’을 구입하시는 스님과 불자님께는 본사에서 직접 제작한 **산동이 벽시계**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표 박천호 회장

**부처님 등불' 특징**  
<크기: 지름 9cm x 높이 39cm>

안정성과 그윽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색상별 제품 구입 가능**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옥색), 소원성취(파랑), 부부합합(옥색), 신혼기원(자주)

산동품 산동이 벽시계 별도 판매시 15,000원

물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판매합니다

연꽃, 도라지, 국화, 별

문의 전화 및 취급점 상담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 공장 02)997-2801 가나 공예양초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